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455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현대인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하고, 가정의 재정을 계획해야 하며, 자녀의 교육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숫자, 통계,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때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자신의 경험과 계산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감정의 일부를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결단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이성과 지혜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결코 다 알 수 없는 영역, 특히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6절은 그 결과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대신' 걸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될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가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를 먼저 묻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녀의 진로,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서로의 의견만 주장하며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번 한 주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불안과 계산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길,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고백하는 가정마다, 비록 지금이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25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매일 '내일을 위한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은 물가가 오를까?", "우리 아이의 성격은 괜찮을까?", "집은 마련될 수 있을까?",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러한 걱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걱정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갇아먹고 믿음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염려가 얼마나 우리를 묶어매는지, 그리고 그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33절)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라는 혁명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보통 먹고사는 문제(물질), 안전과 건강(생존), 미래의 보장(불안 해소)을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두 가지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오늘날의 염려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오늘의 삶을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일주일 일정은 얼마나 뻘뻘한지 모릅니다. 학원, 직장, 모임, 집안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은 쉽게 밀려납니다. 하지만 가정예배, 함께 성경 읽기, 이웃 돕기, 용돈과 헌금의 기준 정하기,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순위 맨 앞에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정생활입니다. "이번 주 가족 일정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적어보자", "한 달 예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몫을 먼저 떼어놓자"라는 실천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누구(무엇)를 주인으로 섬기는지 보여주는 신앙고백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살아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야라고 하십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내 필요를 아시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당신의 나라와 은혜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가정은, 눈에 보이는 형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풍성해지는 삶』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57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느낌'이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설렘, 따뜻함, 행복감이 있을 때 "사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부딪히고, 말이 엇나가고, 서로함이 쌓이다 보면 "이제는 사랑이 없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감정을 초월한 것, 의지적 선택과 실천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7가지 긍정적 특성으로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4~7절). 이 목록은 가정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말살수를 오래 참고, 자녀의 반항적인 태도에 온유하게 반응하며, 형제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흠을 중언부언하기 전에 관계의 평화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특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말씀은 사랑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 관계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임을 보여줍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은 거창한 희생보다 일상의 작은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수고했어", "고마워",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는 것. 자녀의 실수 앞에서 "왜 그랬어?"보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 배우자의 지친 얼굴을 보고 말없이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서로의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품어줄 때, 그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오늘 하루,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먼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건네는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사랑은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물질이 풍족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메마른 사막과 같고, 사랑이 넘치면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그곳은 천국과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를 따라 "참고, 기뻐하고, 견디며"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이 쌓일 때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교회가 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성김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28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과 '출세'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영향력, 더 많은 인정, 더 강한 권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논쟁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복음 10:45).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섬김'이라고 도덕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 이유와 사역의 핵심이 '섬김'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요 13장)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심으로(막 10:45) 궁극의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섬김이 단순한 봉사나 선행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한 희생적 사랑의 행위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본질"입니다. 가정 안에서 '섬김'은 특별한 이벤트나 거창한 봉사보다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말없이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 피곤한 배우자를 위해 조용히 등을 문질러 주는 것, 형제와 다툼 자리 옆에 앉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들어주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돕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느냐"를 묻는 가정이야말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가정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가장 큰 자로 보십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은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섬김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섬김은 피로를 보듬으며, 섬김은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번 한 주, 가족 중 가장 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정해 그의 짐을 함께 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서로 중 노릇 하라"(갈 5:13)는 바울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시신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신앙의 오솔길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그에게도 좀처럼 응답이 어려운 기도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5명의 친구에 대한 구원문제였습니다. 물러는 이 친구들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두 명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가 세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명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물러는 무려 52년 동안 이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물러가 노년이 되어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의 두 명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우연히 교회를 지나다가 물러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한사람...

그러나 물러는 이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러의 기도 가운데 응답 받지 못한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어느 날 물러가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를 해주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감동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일생을 기도해 준 친구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길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물러의 기도는 결국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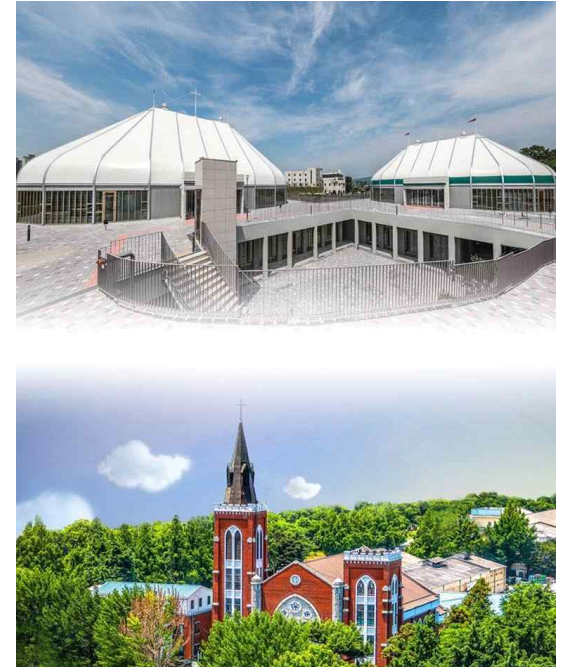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

(요한복음 15:7)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